

무대로 변한 안방...나훈아 콘서트 TV로 즐긴다

30일 '한가위 대기획'...28곡 열창
내달 2·3일엔 '숨든명' 특집 방송
방콕페창단·올인 등 파일럿 풍성

2주도 채 남지 않은 추석 명절, 안방극장이 '랜선 콘서트'의 전장으로 변모한다. 각 방송사가 저마다 '엔택트'(온라인 비대면) 공연을 주제로 삼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오프라인 공연이 사라지면서 시청자의 시선을 안방극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방송사들의 노력이다. '안방 랜선 콘서트'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셈이다.

● '추억의 스타' 총출동

가장 관심을 끄는 무대의 가수는 '트로트 황제' 나훈아다. 나훈아는 30일 오후 8시30분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대한민국 어게인'으로 15년 만에 시청자를 만난다. 방영에 앞서 23일 온라인 공연을 녹화한다. 1000명의 '방청객'이 각자의 집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영상으로 무대를 관람한다. '온라인 방청'임에도 1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모집기간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일찌감치 높은 관심을 모았다.

나훈아는 2017년 이후 매년 콘서트를 열어왔지만 올해는 '엔택트 공연'을 선



'트로트 황제' 나훈아가 15년 만에 시청자를 만나며 추석 '랜선 콘서트'에 나선다. SBS는 '방콕페창단'으로, tvN도 '올인'으로 비대면 무대를 열고 감염병 시대의 추석 연휴 안방극장을 채운다. (왼쪽 큰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 노래에 배팅 할 것 습니까? 9월 27일~10월 4일 (월) 밤 10시 30분 7시

택했다. 무대에서 8월20일 선보인 음반 '나훈아 이혼이야기'의 수록곡을 포함해 모두 28곡을 부른다. 그는 제작진을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꼭 공연

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있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며 공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튜브 상에서 '역주행' 인기를 몰고

있는 그룹 유키스, 틴탑, 티아라 등도 다시 시청자와 만난다. SBS 디지털 프로그램 '문명특급'이 기획한 '숨든명 콘서트'를 통해서다. 이들은 '숨어서 듣는 명곡'의 줄임말인 '숨든명' 코너에 출연해 200만 조회 수를 넘기면서 새삼 화제를 모았다.

프로그램은 가수들의 온라인 인기에 힘입어 10월2일과 3일 추석 특집으로 편성됐다. 제작진은 공연에 앞서 팬들로부터 각종 응원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미리 받았다. 이를 녹화장에 설치해 콘서트 분위기를 제대로 재현한다.

●음악+추리 포맷도 인기

음악 무대와 '추리' 포맷을 섞은 새 예능프로그램들도 추석 연휴를 통해 시청자의 반응을 미리 점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방송할 SBS 파일럿프로그램 '방콕페창단'은 연예인들이 영상 너머 가수들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인지를 알아맞히는 내용이다. 가수 김희철, 송가인, 개그맨 조세호 등이 '추리단'으로 참여한다.

tvN은 파일럿프로그램 '올인'을 2회 분량으로 선보인다. 다섯 명의 비연예인 도전자가 주어진 돈을 '배팅'해 자신 있는 노래를 선정하며 대결을 펼치는 과정을 담는다. 미국 유명 제작사인 프로파게이트와 공동 제작해 해외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9월27일과 10월4일 방송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BTS, 美 '아이하트라디오 페스티벌' 무대

그룹 방탄소년단이 1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LA의 대규모 음악축제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페스티벌'에 나선다. 미국 온라인 라디오 플랫폼 아이하트라디오가 여는 축제에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싱글차트 '핫(HOT) 100' 2위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 무대를 선보인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축제에는 콜드플레이, 마일리 사이러스, 어셔 등 세계적 스타들도 함께 참여한다. 방탄소년단은 17일 미국 NBC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와 모닝쇼 '투데이 쇼' 등에 잇따라 출연했다.

음원 사재기 제기한 박경, 벌금 500만원



박경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아이돌 그룹 블랙비의 멤버 박경(28)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경은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가수 6명(팀)의 이름을 공개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피소·고발됐다. 검찰은 정식 재판 없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커피프린스 1호점' 주역을 다급으로 재회

연기자 공유, 윤은혜 등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 주역들이 13년 만에 만난다. MBC는 17일 "'커피프린스 1호점'의 주인공들이 모여 과거를 회상하는 다큐멘터리인 '청춘다큐-다시 스물'을 24일과 10월1일 방영한다"고 밝혔다. 공유와 윤은혜 외에도 이선균, 채정안, 김동욱, 김재욱이 함께 드라마의 명장면을 다시 보고, 각자의 고민을 나눈다. 드라마를 연출한 이윤정 PD도 캐스팅 비화 등 못 다 전한 뒷이야기를 밝힌다. 2007년 방영한 드라마는 카페 사장과 남장여자 직원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 당시 27.8%(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기록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영화의 본질은 스크린”...BIFF, 오프라인 개막

(부산국제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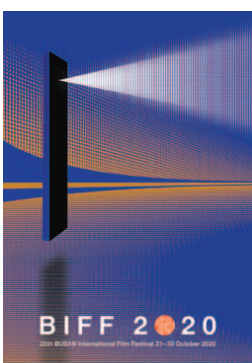
내달 21~30일 영화의 전당 개막
5개 스크린서 영화 190여편 상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땀 취소 각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규모를 축소해 개최기로 한 가운데 감염병 확산의 시대에 영화 극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당초 예정을 2주 미룬 10월21일 개막해 예년의 약 70% 수준인 190여편의 영화 상영에 집중한다. 30일까지 68개국 192편을 부산 해운

대구 영화의전당 5개 스크린에서만 상영한다. 개폐막식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는 생략하기로 했다.

국내외 적지 않은 영화제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오프라인 축제를 취소·연기하거나, 온라인 및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만큼 극장 스크린에 투사되는 매체로서 영화의 의미와 극장 상영 방식을 지키려는 의지로 비친다. 이윤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저작권 문제와 온라인 상영에 대한 감독 등 초청작 작품자들의 의사 존중 등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개최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기 2.5단계나 3단계로 가면 올해 영화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는 역설적으로 거장들의 영화를 대거 선보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남동철 수석프로그램머는 “예년보다 편수는 줄었지만 코로나19 환경에서 굉장히 많다”면서 “거장 감독들과 다른 영화제 화제를 소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진바오(홍금보)·위안하핑(원화평)·쉬커(서극) 등 홍콩 명장 7명이 함께한 옴니버스 영화 ‘칠중주:홍콩 이야기’를 개막작으로, 왕자웨이(왕가위)의 ‘화양연화’ 복원판, 구로사와

기요시의 ‘스파이의 아내’, 차이밍량의 ‘데이즈’, 오손 웰즈의 ‘호퍼/웰즈’ 등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남 수석프로그램머는 이와 함께 “올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한 칸 국제영화제가 선정한 작품 56편 가운데 23편을 상영한다”고도 밝혔다.

이렇게 채워지는 영화제 라인업의 한 축은 한국배우들이 담당한다. 정진영(사라진 시간), 안재홍(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안고) 등 감독으로 나선 배우들이 다채로운 장단편영화를 소개한다. 또 미국의 권위 있는 독립영화제인 선댄스영화제에서 올해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은 한국계 리 아이작 정 감독의 미국영화 ‘미나리’의 주연 한예리와 윤여정도 관객을 만난다. 정우성은 영화 ‘강철비2:정상회담’의 확장판을 선보일 예정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수술한적 있는 나도 침습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생명보험 협회 심의필 제 2020-02556호 (2020.09.01) <COM-2020-08-32243>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갱신형)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	------------	----------------------------

보험금도 돈돈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암보험 가입 험드셨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스텐가미술 1개 상담 완료 시 무료증정!

[이벤트기간: 2020.08.01 ~ 2020.12.31]

- ▶ 전수 후 3일 이내 최소 50만 이상 상환 시 (갱신형) 배려
- ▶ 배상금 상환완료 후 약 6주 소요 (연 배향)
- ▶ 입사 시 50만 5000원 (최소 50만 5000원)
- ▶ 본 상품은 소비자가 기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 초기 증액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됨

가인 후 1일부부터 보장(단,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전단 시 50% 보장)•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인가원금이 없는 손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장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존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해지금을 합하여 1000만 원) 최고 500만원이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이 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로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람.

AA생명보험 주식회사